

대구대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수상

김윤섭기자 | 승인 2022.10.31

12년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 운영 공로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26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상 시상식에서 독도사랑상(단체)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승 대구대 교수(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과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소장 윤재운)가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에서 수여하는 독도사랑상(단체)을 수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체험관 교육장에서 독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나뉜다.

특히 독도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울릉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 팀이 독도사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여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또한 이 연구소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역사교육과 교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독도사랑상을 수여받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수상

2022-10-29 21:14



이용승 대구대 교수(왼쪽)와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대구대 제공]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 대구대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여하는 독도사랑상(단체)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체험관 교육장에서 독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구분된다.

독도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울릉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팀이 독도사랑 유지결 공연을 선보여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또 이 연구소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역사교육과 교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독도사랑상을 수여 받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인쇄하기 | × 닫기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수상

온라인 기사 2022년10월29일 07시56분

독도사랑상, 독도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

-대구대, 2010년부터 12년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 운영 공로

[일요신문] 대구대는 이 대학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소장 윤재운)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에서 수여하는 독도사랑상(단체)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체험관 교육장에서 독도상 시상식을 가졌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독도사랑상 수상 기념사진(왼쪽 이용승 대구대 교수 및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 오른쪽 이영호 동북아역사 재단 이사장. 사진=대구대 제공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나뉜다.

특히, 독도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이 대학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열린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올림포·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 팀이 독도사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여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또한 이 연구소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재운 소장(역사교육과 교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독도사랑상을 수여받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이기사주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9532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독도사랑상 수상

등록 2022.10.27 16:17:14

기사내용 요약

2010년부터 12년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운영 공로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독도사랑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이용승 대구대 교수(왼쪽)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 나호용 기자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수여하는 독도사랑상(단체)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나뉜다.

독도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올릉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 팀이 독도사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여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를 빛내기도 했다.

또 이 연구소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

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역사교육과 교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독도사랑상을 받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h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수상

입력 : 2022-10-27 16:43 | 수정 : 2022-10-27 16:43



▲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독도사랑상 수상 기념사진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여하는 독도사랑상(단체)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나뉜다.

독도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울릉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 팀이 독도사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또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역사교육과 교수)은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대학저널

HOME > 대학뉴스 > 대학일반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독도사랑상 수상

온종림 기자 / 기사작성 : 2022-10-27 16:45:27

12년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 운영 공로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독도사랑상을 수상했다. 이용승(왼쪽) 대구대 교수 및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과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대구대학교는 27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는 독도사랑상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독도사랑상은 교육과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 동안 열린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와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울릉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또한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dhnews.co.kr>]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수상

✎ 김원균 기자 | ⓒ 승인 2022.10.27 23:17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운영 공로



이용승 대구대 교수 및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왼쪽)과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대구대 제공

[경산(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대구대학교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이 수여하는 독도사랑상(단체)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 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나뉜다.

독도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울릉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 팀이 독도사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여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또 이 연구소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은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수상

2022-10-27 17:03, 최병수 기자 [XML:KR:1604:교육]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2010년부터 12년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 운영 공로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독도사랑상 수상 기념사진(왼쪽 이용승 대구대 교수 및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 오른쪽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사진 = 대구대학교)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소장 윤재운)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에서 수여하는 독도사랑상(단체)을 수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체험관 교육장에서 독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나뉜다.

특히 독도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올릉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 팀이 독도사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여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또한 이 연구소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역사교육과 교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독도사랑상을 수여받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수상

박종률 기자 | 승인 2022.10.27 18:07

대구대, 2010년부터 12년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 운영 공로

[경북=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여하는 독도사랑상(단체)을 수상했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여하는 독도사랑상을 수상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이용승 대구대 교수 및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 오른쪽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사진=대구대)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체험관 교육장에서 독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나뉜다.

특히 독도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게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연구소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역사교육과 교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독도사랑상을 수여받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률 기자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사랑상 수상

✎ 심한식 기자 | ⓒ 승인 2022.10.30 14:02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독도 사랑상 수상 기념사진(왼쪽 이용승 대구대 교수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동북아역사재단이 수여하는 독도 사랑상(단체)을 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독도체험관 교육장에서 제13회 독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독도 학술상과 독도 사랑상으로 나뉜다.

독도 사랑상은 교육, 문화, 홍보, NGO 등 비 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1명)과 단체(1팀)에 수여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 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 받았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독도 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율령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 팀이 독도 사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여 외국인 유학생 독도 사랑 한마당 행사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외국인 유학생 독도 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독도 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일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수상

입력 2022-10-27 17:44:25, 수정 2022-10-27 17:55:19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독도체험관 교육장에서 '독도사랑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독도상은 독도 관련 학술연구와 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독도학술상과 독도사랑상으로 나뉜다. 이 상은 교육, 문화, 홍보, 비영리단체(NGO) 등 비학술 분야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개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한다.



독도사랑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영승(왼쪽부터) 대구대 교수,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대구대 제공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2010년부터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를 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콩트, 연극,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울릉도·독도 탐방으로 매년 열린다.

특히, 올해는 대구대 한국어교육학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위키(WK)+위키(WK)' 팀이 독도사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여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연구소는 독도사랑 음원을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자체 제작해 보급하는 등 다양한 독도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역사교육과 교수)은 "독도사랑 한마당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